

불법은 원래 있는 법을 '확인' 한 것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실로 작은 법도 없는 것이 없다. 이것을 이룸하여 '아득보리'라 한다.

불법이란 어떤 법을 새삼 얻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있는 법을 확인한 것일 뿐, 없는 무엇을 찾아서 구해온 것이 아니다. 원래 있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다. "아! 이것이구나. 그런데 허망한 데에 나도 모르게 속아서, 낫 나간 짓을 하고 살았구나. 알고 보니가 그림자에 속았던 것이다. 본체를 보니까 나와 나가 둘이 아니고,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본래 둘이 아니었구나. 둘이 아닌 성품, 그것을 깨달았다고 했구나."

아득다라삼마삼보리란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말한다. 이것은 사실 늘 눈앞에 드러나 있지만, 마음의 눈을 아직 못 뜬 입장에서 성품을 봐야지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세계는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 하다고 하는 것이다.

오로지 일심(一心)일 뿐, 실로 다른 차별상이 없다. 또한 광채도 없고, 우열도 없다.

허공에 밝음이 오면 밝아지고, 어둠이 오면 어두워질 뿐이듯이, 거기에 아무런 광채란 없다. 모양이란 인연 따라 드러나는 상(相)일 뿐이다. 미혹한 범부는 길모습에 속아서 간택을 하며, 얽매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을 돌이켜 깨달음을 증득하시고, 어둠 속에서 해매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 해주셨다. 성품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본심을 잃지 않게 해주고, 더 이상 허망한 데 고집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셨다. 어쨌든 근본 마음자리를 분명히 봐야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

나를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는 형상도 없고,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형상도 없다."

그 자리에서는 한 마음으로 만법이 평등하므로, 새삼 부처라고 떠받들며 공경해야 할 모습도 없고, 중생이라고 차별하여 구제해야 할 모습도 없다. 그래서 둘이 아닌 '불이법(不二法)'이라고 하는 것이다.

배후가 물었다. "마음이야 모양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부처님의 32상(相) 80종호(種好)와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배후는 아직 상을 여의지 못한 입장이어서, 부처와 중생을 분별할 수밖에 없다. 황벽스님은 처음 상당법문부터,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마음일 뿐, 다른 어떤 법도 없다. 이 한마음 그대로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새삼 다를 바가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였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7)



범이사 주지

마음의 눈 못 뜬 입장에선 성품 봐야 '정등·정각' 확인가로 표현 못해 '불가사의'

모양은 인연 따라 드러나 범부는 길모습에 속아서 간택하며 얽매인다

마음자리 분명히 봐야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 한마음 일뿐 다른 법 없다" 32상 형상, 80종호 색깔 만법이 평등하므로 '불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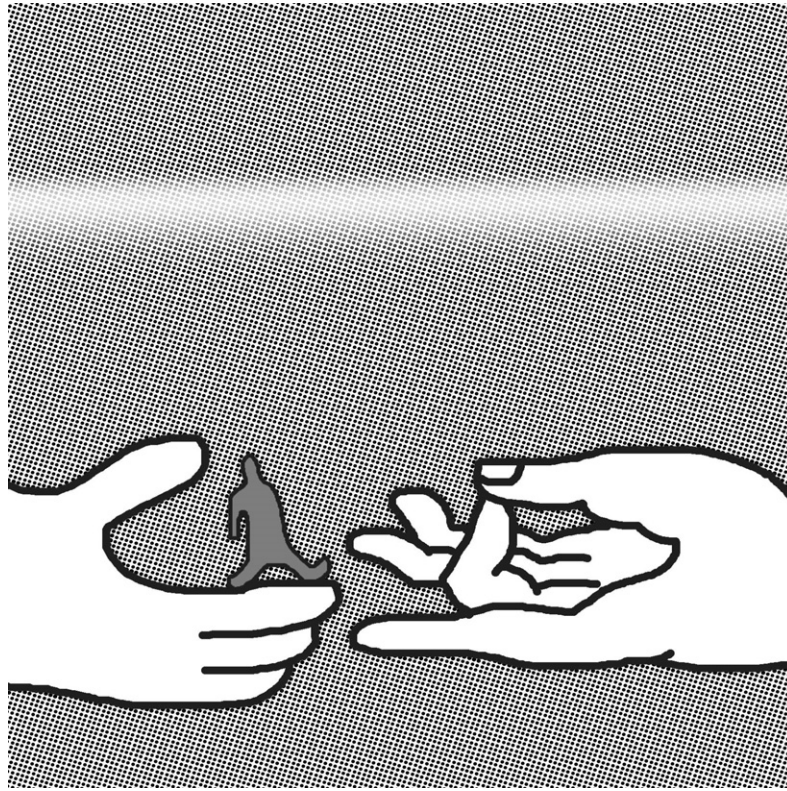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하지만 배후는 모양에 집착하여 아직도 밖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32상은 형상에 속한 것이니,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한 것이다. 80종호는 색깔에 속한 것이니, '만약 길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면, 이 사람은 샅뽀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여래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이다.

형상과 색깔에 따라 분별하는 배후를 위하여, 황벽스님은 《금강경》 사구계의 부처님 말씀을 빌려와서 친절하게 일러준다. '凡所有相皆是虛妄' 그리고 '若以色見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배후와 황벽스님의 차이는, 전자는 상에 사로잡혀 그 바탕인 성품을 볼 수 없었고, 후자는 상을 여의고 중도실상을 철견(徹見)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배후의 변견에 치우친 물음에 따라, 언제나 중도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대의 분별방상을 깨트리는 기원을 열어주는 것이다. 일심(一心)에 눈을 뢰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는 이렇듯 대사에 천지현격으로 벌어지므로, 옛 어른들은 무엇보다 먼저 심안을 열고자 당부하신 것이다.

6. 한 마음의 법

배후가 여쭙었다.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같다고 해도 두드러 맞고, 다르다고 해도 두드러 맞는 도리다. 황벽스님이 아무리 꼭박스럽게 법을 보여주어도, 배후가 아직 눈을 못 떠서 소화할 수 없으므로 조심스럽게

일러주어야 한다. 자칫 자기 식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에 또 매달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성품에는 같고 다름이 없다.

부처의 성품이나 중생의 성품이나, 성품 자체에는 같고 다름이 없다.

만약 삼승(三乘)의 가르침에 의거하면,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다르다고 설한다. 그리하여 삼승의 인과가 세워지며, 같고 다름이 있게 된다.

삼승의 교학의 입장에서,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다. 인과도 분명하며, 차이도 선명하다.

그러나 만약 불승(佛乘)과 조사가 서로 전한 바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일은 논하지 않는다. 오직 일심만을 가리켜 보일 뿐, 같음이나 다름도 없고 원인과 결과도 없다.

교학에서 배운 바를 가지고 물어오는 배후를 향하여, 황벽스님은 선가(禪家)의 기본 안목을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하면, 면전에는 오직 일심(一心)만이 분명하여, 교학에서 말하는 인과나 온갖 차별상은 일거에 분별방상이 되나라 하게 드러난다. 그냥 이 한마음 밖에 없으므로,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히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뿐이다. 그것이 천월백 공안으로 기록되었고, 온갖 어둠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황벽스님의 제자인 입제가 깨닫고 한 말처럼, "원래 황벽 불법이란 별 게 아니군! [元來 黃檗佛法 無多子]" 그대로다. 선(禪)의 본령은 간단 명료할 뿐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㉓



다른 사람들에게 자세히 해설해 주고 올바르게 가르쳐 준다면, 그 공덕은 지극히 많을 것이다

〈여래장경〉

교종의 수행법

오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서, 그 전부를 다시 읽어보기로 하자. 부처님께서 금강해보살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금강해여, 우리 집안의 훌륭한 아들이든(善男子), 딸이든(善女人), 또는 재가의 신자이든 출가의 수행자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이 '여래장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니고, 읽고, 암송하고, 서사(書寫)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세히 해설(講釋)해 주고, 올바르게 가르쳐(說示)준다면, 그 공덕은 지극히 많을 것이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여래장경〉은, 여래장사상 연구의 권위자인 다카사키 지키도(高崎直道) 교수가 산스크리트문으로부터 직접 번역한 것이다. 물론 한문 번역본도 있는데, 아마도 앞에서 인용한 구절은 "수(受), 지(持), 독, 송, 서사, 위인해설(爲人解說)"이라 되어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은 정형화된 형태로, 거의 모든 대승경전에 다 나타난다. 경전의 말씀을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선종의 수행법이 참선이라 한다면, 교종의 수행법은 이렇게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니고, 읽고, 암송하고, 서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설해 가는 것이다.

이 여섯가지 수행방법 중에서 시대의 추이에 따라서 다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서사일 뿐이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기에 손으로 베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모든 인쇄술이 다 가능하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도 서사이고, 핸드폰 문자로 경전의 구절을 전송해도 서사이다.

"서사"를 개인적인 수행을 위한 '사경'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타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설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권진(勸進)인가?

근래 수십년 동안, 나는 독서회운동을 펼치고 있다.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일본불교사연구소'에서이다. 일본불교에 관한 책을 읽는 독서회를 만들고 운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아직까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지만, 차차 활성화되리라

라 전망된다.

그 독서회를 만들고 이끄는 '독서회의 리더'를 '권진'이라 부른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 말이 널리 쓰인 것 같지 않지만, 일본불교에서는 참으로 널리 쓰인 말이다. 우리에게도 불사의 총책임자라는 뜻에서 도감(都監)이라는 말도 있고, 재정적인 권선(勸善)을 하는 화주(化主)라는 말도 있다. 이 두 개념을 하나로 합한 것이 '권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물론 경전에서부터 '권진'이라는 말은 나온다. 〈관무량수경〉에서는, "그 마음을 권진한다(勸進其心)"는 말씀도 있고, '권진행자(勸進行者)'라는 말도 나온다. 권진



그림 · 박구원

행자는 곧 권진이라는 말일 터이다.

우리 독서회에서 권진은 독서회에 참여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정히 강석(講釋)해 주고 설시(說示)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권진을 누가 해야 하는가? 출가한 스님이라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기 〈여래장경〉에서 부처님은, "재가의 신자이든, 출가수행자이든, 어떤 사람이라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스님은 물론이지만, 재가의 신자들 역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로 뒤로 돌아서 부처님을 등에 업고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설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권진이다. 이 〈여래장경〉의 부처님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 중에 권진을 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면허장은 애당초, 불교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최고의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로 불교인재양성

2013년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 선·명상학과 제2기(2년과정) 9월 5일(목) 오후 7시 개강**
 - 1학기 람림 티벳불교의 불교수행 종합지침서로 처음 불도에 입문한 이부터 수행에 익숙한 이까지 수행의 길을 상세히 제시 (티벳 보리도 차제론) 텐진 남카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장경연구소 연구교수, 티벳학부 코리야 원장)
 - 2학기 조사선
 - 3학기 영물선
 - 4학기 위빠사나(정정도론)
- 불교학과 (2년과정) 토요일 (오후 6시), 목요일 (오후 2시), 통선반 : 접수중**
 - 1년차 과목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대승사상, 불교사회복지,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무진장대중사(본대학학장), 정엄사상, 김형준교수,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보각스님 외
 - 2년차 과목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당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최중석교수, 김로규교수, 윤열수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모주스님 외
- 불교관련학과**
 - 불교다학과 (2년) 한국저문화사, 중국저문화사, 일본저문화사, 박희준교수 외 9월3일(화) 오후2시 개강
 - 불교미술학과 (3년) 제다심경, 홍차, 차수행, 불화기본, 명화기본, 사물기본, 단청기본, 법인스님 9월5일(목) 오전10시30분 개강
 - 불교미술학과 (3년) 보살초, 사천왕초, 여래초, 영산회상도, 변상도
- 동산불교대학원 (3년과정) 법사과정**
 - 불교학과 법화사상 차차석교수 9월2일(월) 오후7시 개강
 - 불교학과 (정규반 통선반) 김형준교수 9월3일(화) 오후7시 개강
 - 불교학과 (정규반 통선반) 초기불교수준론 8 최봉수교수 9월5일(목) 오후4시 개강
- 동산의식교육원 (2년과정) 의식법사과정**
 - 한글 의식반 시다림과 천도한글의식 문중순 법사 9월7일(토) 오후2시 개강
 - 법패반 함께하는 천수경 만춘스님
 - 법패반 법패전통실기 인각스님 9월4일(수) 오후3시 개강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대학
TEL 02) 732-1206~8, FAX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217회 깨달은 3000배

절, 염불, 독경, 참선, 행선, 와선, 부처님오공법
삼매체함한 에너지로 에고 중생맘 확 녹이고

진짜참회 처음 공개!!

착한척, 잘난척, 아는척, 똑똑한척,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복짓고 업장소멸, 참회기도, 갖가지 수행하는데 왜 병, 불행에 쫓기고 있나?

※ 천도재, 조상타령, 귀신탈령, 팔자타령, 돈타령, 절대 하지 않음

- 날 짜 : 8월 31일(토) 저녁 9시 ~ 9월 1일 아침 7시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수련복, 기도포, 수건)
- 장 소 : 법왕정사 울산 연양법당 KTX울산역 3분, 서·울산C 3분, 연양버스터미널 1분

법왕 참부처님 참불교 법왕정사
www.법왕정사.net
☎ 052) 254-7768, 010.3487.0035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떨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